

MEMBERSHIP TREND

회원사 동향

현대중, 부회장에 민계식 전 사장 선임

현대중공업(대표 유관홍)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민계식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유관홍 전 현대미포조선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양사간 사장 맞교환이 이뤄졌다.

주총에서는 이와 함께 신명선 경영지원본부장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사외이사엔 장 유환 비즈팜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기계공업의 단조품 사업과 선박용 전장품 설치사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판매업 선박 및 기계 관련 사업 분야를 신설했다.

LG전선, 美OFS와 전략적 기술 제휴

LG전선(대표 구자열)이 미국의 OFS사와 차세대 광섬유 제조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사용 및 광통신 시스템 관련 전략적 기술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LG전선은 특허사용 및 광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을 공동연구하게 됐으며 OFS사로부터 제조 신기술과 관련된 제반 특허의 포괄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핵심기술인 광섬유 편광특성 제어기술과 중·단거리망에 사용되는 광다중 분할시스템 및 장거리 광통신망 '분산 천이 광섬유' 제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광섬유, 광케이블, 광부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광통신시스템 전반에 걸친 신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자원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또 공동 개발된 기술특허에 관해서는 5년간 양사가 특허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번 기술제휴는 양사의 강점을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줌으로써 양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제휴로 LG전선은 광통신분야 세계 3대 메이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세계 광통신 케이블 관련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디파워, 33개 기술 1분기 KT마크 획득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의 '수배전반용 전력컨디션 인디케이터기술'을 비롯한 33개 기술이 2004년도 1분기 KT마크를 받았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달 18일 노보텔 엠버서더호텔에서 KT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KT마크를 획득한 33개 기술은 심사대상 133개 기술에 대해 1차 면접,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기술성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술과 제품으로 신청대비 29.2%의 선정율을 보였다.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70%인 23개, 대기업은 24%인 8개, 공동신청은 6%인 2개였다. 이번 KT마크 선정으로 93년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총 1736개 기술이 신기술로 인정됐다.

KT마크를 받은 전기·전자분야 기술은 ▲수배전반용 전력컨디션 인디케이터 기술(케이디파워) ▲냉각배관 시뮬레이터 및 냉각팬 팁 변화를 이용한 에어컨 실외기 컴팩트기술(LG전자) ▲다중렌즈를 이용한 IR 카메라의 주야간 동시 자동초점 조절기능 및 조절방법(비전하이텍) ▲차량용 루프검지기 자동진단장비를 활용한 유지관리시스템(유티정보) ▲열간/냉간 복합압연법을 이용한 EDLC

용 초고용량 전극제조기술(코칩) ▲5 Layer MEA와 실링 일체형 분리판을 내장한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휴얼셀파워) ▲더블 랑뮤어 프로브 방식의 플라즈마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플라즈마트) ▲H₂O₂ 이용한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술(휴먼메디텍) 등 총 8개다.

현대중, 올 저압기기 특약점 매출 1천억 목표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본부장 김영남)는 최근 수안보 조선관광호텔에서 저압기기 전국 특약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올해 중저압 차단기와 전동기, 인버터 등 저압기기의 특약점 매출 목표를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GD(우수디자인)마크 차단기와 고효율 전동기, 최소형 인버터 등 신제품을 집중 출시하고 고객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저압기기 사업을 강화해 온 결과 특약점 매출이 전년대비 20% 신장한 820억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고객서비스 확대를 통해 저압기기 분야의 현대 브랜드 선호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특약점 우량화·대형화를 통해 유통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전기기 빅 3 중국 잡기 본격화

LG산전과 현대중공업, 효성등 이른바 중전기기 '빅 3'의 중국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중국의 전력수요가 연간 10%이상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중전기기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산전은 오는 12월 중국 우시 신규 개발구에 자본금 600만달러 규모의 전력 및 자동화 기기 생산·판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2006년까지 1300만달러가 투자되는 신규 법인은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기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상 매출은 2006년 7000만달러, 2007년 1억6000만달러로 잡았다. LG산전은 현재 중국에 전력시스템을 생산, 판매하는 대련법인과 무역을 담당하는 상하이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투자로 기기부터 시스템에 이르는 종합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현대중공업도 최근 BOE-하이디스사가 설립하는 10만평 규모의 베이징 LCD공장에 2000kW급 디젤 발전기 세트 4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MEMBERSHIP TREND



이번 수주는 제작과 설치, 시운전 등 전 작업을 현대중공업이 모두 맡는 일괄 도급(턴키 베이스) 방식이다. 오는 6월 완공되는 2000kW급 발전기는 아파트 4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BOE-하이디스가 설립하는 공장은 총 5개 라인 중 1차로 건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후 4개 라인 증설시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또 올 5월부터 강소현대남자전기유한공사를 통해 배전반, GIS(가스절연 개폐장치), 차단기 등을 생산,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효성도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에 배전 변압기 공장 건립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완공예정이다. 중국 최대 변압기 생산업체인 바오딩티안웨이와 효성의 합자법인인 보정효성천위 변압기유한공사는 35~500kVA 이하 배전변압기를 연간 1만1000대 가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